

The Economic Way of Thinking - 11장

이병욱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11장. 이윤

- 목 차 -

1. 이윤의 정의
2. 무엇이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나?
3. 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가?
4. 이자율에서의 위험요소(risk factor)
5.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
6. 불확실성 : 이윤을 위한 필요조건
7. 이윤추구
8. 기업가
9.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가? 잔여지급청구권자
10. 비영리기관(nonprofit institution)
11. 사회주의로부터의 전환
12. 모든 사람이 기업가이다.
13. 뜻밖(windfall)의 이윤과 손실
14. “뜻밖의 횡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15. 예상과 행동
16. 경쟁에 대한 제한
17. 주요자원을 위한 경쟁
18. 경쟁과 재산권

1. 이윤의 정의

이윤 = 총수입 - 총비용 : 가장 일반적인 정의이며, 직관적인 정의임

- 기업의 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남아 있는 것이 이윤 혹은 순수입(net Income)임

- 이윤의 크기를 합의하기 전에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필요

2. 무엇이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나?

- 총비용(=기회비용) = 재화사용액의 사용대가(타인지불+자가공급분의 지불(암묵적 비용 미지불분 포함) + 이자 + 배당금

- 화폐 지출은 기회비용관점에서 보면 비용과 다름

*자가경영사업자(Owner-operated business)의 지불되지 않는 자신의 노동비용이나 오피스 소유 빌딩의 지급되지 않는 사용료(임대료)도 비용임

*적용예: 조세정책에 반영되어 자가 건물 임대료 미 징구 시 증과세 실시(전경련도 유관기관에 대해 임대료 징구 시작)

*과거에 구입한 장비 현재 사용하는 경우 1) 은행대출을 받아 구입한 장비는 이자지급분이 비용이며 2) 저축한 돈으로 장비를 구입하였다면 포기된 저축이자 소득이 비용임

→즉, 포기된 소득은 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 법인기업의 이윤은 법적으로 정의되나 기회비용과 다름.

* 회사의 주주 배당은 법적, 회계적으로 비용이 아니나 경제학적으로는 비용임.

* 주주 배당은 일종의 잔여(Residual)이나 채권 이자는 지급의무임.

		경제학적 관점	회계 및 법률적 관점
총비용 구성요소	이자	○	○
	배당금	○	×
	사용료(임대료)	○	○
	포기된 소득(기회비용)	○	×

3. 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가?

- 이자는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 화폐사용(상품이나 서비스 사용) 대가가 아님.

* 우리가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더라도 한은이 그 기간의 화폐사용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지급하지 않음.

*화폐를 얻는 방법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나 차용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화폐를 얻는 것임. 차입자는 나중에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면서 지금 돈을 빌려주도록 대출자를 설득하게 됨,

- 이자란 돈을 빌 때까지 자원의 구입을 미루지 않고, 그 자금을 지금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가격임 = 자원의 현재 사용권을 얻기 위한 프리미엄임.

- 이자를 지불하는 이유 : 현재의 자원이 일반적으로 미래의 자원보다 더 가치있는 이유가 선행적으로 설명되어야 함.

* 자원을 소유하는 것은 현재의 기회를 확대시킴. 자원에 대한 현재 사용권을 가짐으로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익능력이 증대될 수 있음.

* 이자가 차입의 결과로 얻을 예상이익보다 작다면, 기꺼이 프리미엄인 이자를 지불할 용의가 있음.

<예> **로빈슨 크루소**: 손으로 일일 5개 조개 채취하여 최저생계유지, 샵 사용 시 일일 15개 채취 가능, 샵 만드는데 30일 소요, 150 조개 빌려 생계유지하며 한달 간 샵 제작하고, 매월 450개 생산하여 빌린 150개와 그 이상의 보상(이자: 최대 월 300개)를 할 수 있게 됨. (현재의 조개와 미래 조개의 교환비율이 이자임. 이자율은 화폐와 무관한 것임.)

*경제학적 자본의 의미: 미래의 상품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현재의 상품 (예: 크루소의 샵, 소매상점의 현금등록기, 기술 등)

→ 이자는 자본주의 경제에만 특수한 것이 아니며, 대금업자들의 탐욕의 결과도 아님.

- 양의 시간선호율(Positive rate of time preference): 사람은 먼 훗날의 소비보다는 가까운 미래의 소비에 더 큰 주관적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음. (예: 4.5만불 자동차 경품 당선 통보받음(앞으로 1년 후에 배달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 다음 주에 경품차를 탈 수 있는 것과는 기쁨에 큰 차이 있음.)

* “순안의 한 마리의 새가 숲속의 두 마리 새보다 낫다”

- 자본재의 생산성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보다 빠른 소비를 선호하는 마음이 결합되어 미래 재화에 대한 현재 재화의 프리미엄을 만들어 내며, 그래서 모든 사회에서의 이자율이 0보다 크게 됨

* 일본은 왜 마이너스 이자율이 발생할까?

4. 이자율에서의 위험요소(risk factor)

- 대출 이자율= 특정사회의 순시간 선호율(net rate of time preference:자원의 미래사용권에 대한 현재사용권의 가치) + 위험수수료(risk Premium) + 대출협상비용

* 성공적인 대기업의 은행대출이자율 보다 개인대출이자율이 높는데 이것은 개인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이유: 대출금 회수시의 손실과 채무불이행의 가능성 때문에 은행이 대출한 사람에게서 일종의 보험수수료와 개인의 신용조사비용과 대출서류 작업비용을 개인이 지불하는 것임)

* 최고이자율 제한법 등으로 은행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할 경우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계약을 맺지 못할 것임.

* 대출자의 대출조건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준다면 받을 수 있는 대가와 특정대출에 주어 진 위험에 의해 결정됨(적용예: 은행과 기업(개인)대출, 채권가격(우량기업(P&G) 채권(1년 만기 \$917)와 저가 항공사 채권(1년만기 \$714)

* 국회의원들이 이자율제한법을 제정할 때는 자신들이 위험을 무릅 쓰고 크게 할인된 채권(위험채권)을 구입해 본적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함.

5.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1960년대 이후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

- 시장이자율(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예상 인플레이션

*미 연방채권은 채무불이행위험 Zero(Risk free asset)이며, 대출협상비용도 무시해도 좋은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 채권수익율은 14%에 달함. 이는 1년뒤 미래사용권의 현재가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향후 5년간 예상 물가상승율이 연 10%대에 달하기 때문임.

* 1982년 주택채권 수익률(home mortgage rate) 15% = 실질이자율(3%) + 대출협정비용과 채무불이행위험 (2%) + 예상 인플레이션 (10%)

6. 불확실성 : 이윤을 위한 필요조건

- 총비용(=기회비용) = 재화사용액의 사용대가[타인지불+자가공급분의 지불(암묵적 비용 미지불분 포함)] + 이자 + 배당금

→ 이 경우 Zero 이윤으로도 사업유지 가능하며, 확장을 위한 자금차입도 가능

- 총수입 > 총비용(실질적인 비용 + 암묵적인 비용) → 신규 기업 진입 → 상품가격의 하락 및 생산(요소)비용의 상승 → 이윤 감소(이윤 Zero 수렴)

- 끈임없이 변화하고 불확실한 현실세계에서 이윤율이 Zero로 수렴하지 않는(이윤이 존재하는) 이유 : 1) 특정산업에서 이윤이 난다는 것을 알더라도 그들 자신이 그 분야에서 이윤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함. 2) 정보가 희소한 세계에서는 이윤이 발생하는 사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을 수 있음. 결국 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현실세계에서는 이윤이 존재하게 됨.

- 현실세계가 불확실하지 않다면 이윤을 얻는 것과 관련한 모든 것이 알려져서 그 모든 기회들이 완전히 이용되어 모든 곳에서 이윤은 Zero가 될 것임.

- 총 수입 < 총비용 : 손실발생 (불확실성의 결과임)

* 총비용이 총수입보다 많은 데서 사업할 사람은 없음.

→ 이윤은 어떠한 자원에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잔여 임. 이는 모든 비용이 지불되었을 때 수입 중에서 남아 있는 부분이며, 이는 다른 사람보다 미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한 결과임.

7. 이윤추구

- 다양한 투자기회에서 일반적인 수익률 이상의 이윤을 일관되게 얻는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자들보다 불확실한 미래를 더 성공적으로 예측하는 것임.

8. 기업가

- 기업가(entrepreneur)는 미래 예측력이 있어야 하지만 적극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함. 즉, 어떤 특정한 체계화로 그 비용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며, 사회의 어떤 부분을 재조직화하는 사람들임. 그들은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임. 그들은 자신의 통찰력, 예측력, 그리고 조직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음.

* 장의사업자(undertaker)

-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협력해 주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의 모든 선행계약을 존중하여 이 계약들에 대한 이행을 한 후에 잔여에 대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주장할 것임.

“ 당신이 합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합의한 금액을 지불할 것이다. 내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당신은 손해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손실을 감수할 것이다. 내가 성공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합의한 금액만을 얻을 것이다. 이윤은 내가 갖는다.”

- 기업가의 역할과 잔여에 대한 권리주장의 기능을 이해하는 방법: 누가 지배하는가? 를 확인하는 것임. 예: 물품제조공장의 두직원(아킬레스와 핵터)의 대갈못(rivet) 사용 개수 {6개 사용 시 비용절감(작업부담감소) VS 9개 사용 시 튼튼(초과근로희망)}로 논쟁 시 누가 최종 결정하나? 잔여지급청구권자(the residual claimant)임. 당신이 지배하고 싶으면 잔여지급청구권자가 되어야 함.

9.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가? 잔여지급청구권자

- 잔여지급청구권자:

예시1) 화랑 동업자 핵터와 아킬레스의 가격결정관련 갈등 → “ 핵터의 제안: 내가 가격을 결정하는 대신에 너에게 시간당 15달러 근무수당과 투자이익금의 10% 지급 보장(아킬레스가 이를 수락하고 핵터를 보스로 받아들임)

2) 옷가게 스웨터 헐값 세일, 반품, 교환 및 환불 금지 표지판 부착, 구매자의 반품 요청에 대해 집원, 관리자도 거절, 사장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안→ 사장은 모든 미래의 효과들을 예측하여 이득과 손실을 따져(잔여지급청구권) 대화에 응할 것임.

10. 비영리기관(nonprofit institution) : 전경련과 한경연은?

- 비영리기관에는 정의상 잔여지급청구권자가 없음. 비영리기관이 서투른 행동을 자주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임. (예: 대학이 어리석은 일은 많이 하는 것은 현재의 정책을 지속할 때의 비용과 그 정책을 배제할 때의 비용을 비교할 유인과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임, 즉 대학의 정책들은 어리석음의 산물이 아니라 잔여지급청구권자가 없는 사회단체의 산물임)

* 비영리기관의 어리석음의 예: 회계기간 만료 전에 예산 지출하도록 관리자들이 독려(잔여지급청구권자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변화시킬 유인을 갖는 사람들과 그들을 변화시킬 권한을 갖는 사람들이 일치하지 않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음.)

* 잔여지급 청구권자가 있는 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함.

* 사중비용(dead weight loss)의 일종인 줄서기(구매자의 줄서기는 판매자의 이익이 되지 못하면서 구매자에게 부담을 초래하여 수요량 감소 유발)를 줄이기 위해서 누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가? (우체국 보다는 식품가게임) 잔여지급청구권자가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임)

11. 사회주의로부터의 전환

- 중앙계획의 역사는 포기된 다른 기회들이라는 거대한 비용으로 생산된 쓸모없는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음.

* 예시: 1) 예비부품이 없이 생산된 기계, 2) 씨 뿌리기와 경작에 대한 결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초래된 흉작 3) 수량 할당 시 작은 손톱깍기만 생산, 무게 규제 시 대규모 손톱깍기 하나만 생산

- 이윤을 노동착취로 얻어낸 잉여가치라고 비난하는 사회는 잔여 지급 청구권제도가 발전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임. → 그런 사회는 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금지시켜 사람들이 기업가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막을 것임. (예: 헥터와 아킬레스의 계약체결 불허) → 그러한 사회는 계약협정을 위해 협상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조장하는 제도의 발전을 허용하지 않음. 구소련 붕괴이후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체제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임.

* 동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비용을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 사람들이 협력적인 조정을 이루도록 해주는 제도 중 많은 제도를 갖고 있지 못함.

→ 기업가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임.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현상과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메움으로써 이윤을 얻을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임. 자원의 소유자들은 기업가들이 지불하는 것을 받고 그들이 소유한 자원의 통제권을 포기함. 이러한 지불의 총계가 기업가의 비용이며, 총수입과의 차이가 기업가의 이윤임. 기업가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면 손실을 입을 것임.

12. 모든 사람이 기업가이다.

- 인생에서 받을 자격이 없는 이윤이 모든 면에서 발생하게 됨. 이윤들은 많은 경우 예측과 판단의 훈련에 의해 결정됨.

<사례: 1> 오페라 3년 공부한 지우세프 비브레토씨의 소득기회 상실 ; 3년간의 수업료와 그동안 포기된 소득만큼 손실을 보게 됨. 비브레토는 자신이 기업가였으므로 그 손실을 받아들임. 그 음악학교는 합의된 수업료를 받았음.

<사례 2> 항공우주기술자(우주계획 예산삭감으로 손실 초래), 대학교수(연방정부의 고등교육 지출 확대로 이윤 얻고, 작가는 우연한 대중을 사로잡는 책으로 이윤 얻고, 점성가도 이윤과 손실 발생 (이들도 모두 기업가이다)

<사례:3> 스키여행을 가는 사람이 비를 만나면 손해, 비 피하려다 원두막에서 미래 부인을 만나면 이윤 발생(상냥하고 지적인 부인이면 더 큰 이윤 획득, 아이까지 얻으면 엄청난 이윤) → 받을 자격이 없는 이윤이 인생의 모든 면에서 발생

13. 뜻밖(windfall)의 이윤과 손실

- 1)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 사이의 격차 2) 본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행운으로 얻은 것 의미 3) 아무도 행운을 얻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뜻밖의 이윤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윤 의미

- Q : 뜻밖의 손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이유?

A : 1) 아무도 손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2) 손실을 입은 사람들은 그 손실을 보상받을 때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임.

- Q : “뜻밖에” 가 이윤에 붙어 다니는 이유?

A : 이윤의 수령인은 우연히 생긴 이윤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사람들이 주장하기 때문임.

- 어떤 경제체제 내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의사결정은 그 사회에서 성립되고 인정된 재산권에 크게 의존함.

* 여기서 재산권(Property Right)이란 특정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를 말함. (게임의 규칙에 가까운 이야기임) → 어떤 사회에서 공급과 수요의 과정이 작동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재산권임.

14. “뜻밖의 횡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 행동은 예상에 의존하고, 예상은 설정된 재산권에 의존하며, 재산권을 형성시키고 발전시키는 데는 윤리적 신념이 중요함.

<예시> Q: 정유업자의 석유비축량의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이윤(그들과 무관한 사건으로 생긴 뜻밖의 이윤)의 처리는?

A: 정유회사의 경영자들은 그들이 원할 때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원유를 비축하는 것임(이러한 예상은 현재의 재산권을 반영한 것임).

→ 재산권이 다른 형태로 설정된다면 정유사 경영자는 적게 비축하거나 전혀 비축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른 형태의 재산권 설정의 예시: 1) 사회의 인정된 규칙이 원유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연히 비축하게 된 다른 사람의 원유 비축량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2) 조세당국이 원유가격 상승에 기인한 비축량 증가에 과세하면서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분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

*게임의 법칙이 “동전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오면 비기고, 뒷면이 나오면 지는(Head: break even, tails : lose) 경우 아무도 내기를 하지 않음.

→ 법률이나 관습과 도덕적 원리에 의하여 그 사회에서 인정된 규칙은 사람들의 재산권을 정의하게 되므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

15. 예상과 행동

- 사람들은 현재의 재산권에 의하여 생성된 예상에 따라 행동함.

<예시> 1) 피고용자는 금요일에 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작업장에 나옴.

2) 주주는 법적 권리로서 그들이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기업소득의 일정부분을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식을 구입하여 보유함.

3) 운전자들은 적절한 연료를 일반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차를 구입함.

4) 국회의원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변경시키는 법률을 입안함으로써 다음 선거에서 다시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법률을 입안함.

- 정유회사 경영자의 원유비축결정은 상당한 이득과 손실을 유도할 수 있는 투기적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음.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과는 그 경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실제로 발생한 것 사이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경영자의 비축량 결정으로 얻은 이득은 뜻밖의 이득(행운의 산물)이 아님. 이러한 이윤의 원천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한 결과임.

-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이윤과 손실이 의사결정자에 귀속되지 않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게 된다면, 의사결정 시 덜 신중하게 될 것임. 사람들은 언거나 잃을 것이 없을 때 “경솔하게” 행동함.

<예시>1) 학생들은 단지 청강하는 과목보다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는 과목에 보다 신중하게 공부함. 2) 자동차 도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창문을 잠그는데 더 신중함.

- 뜻밖의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 기업가적 행위로 얻은 이윤과 순전한 행

운으로 얻은 이윤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무도 모름 더욱이 잠재적 이윤은 행동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없어서는 안 될 자극제임.

- 잠재적 이윤이 존재하면 기업가들은 자원을 결합시키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신상품을 만들며, 그리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조직혁신을 모색하도록 자극받게 됨. 그리고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일은 운에 맡기고 해보며, 위험을 무릎쓰므로써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증대시킴.

16. 경쟁에 대한 제한

- Q: 경쟁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보장된 이윤의 근원이 되는가?

A: (예시) 낚시터에서 쥐뿔 설계도면 획득하여 특허등록(17년간 경쟁사 복제 금지)하여 첫째 10만달러 수입 기록, 향후 16년간 매년 10만달러 수입 예상 → 이윤의 원천은 경쟁을 금지시킨 특허임.

- (다른 측면에서의 경쟁) 쥐뿔 특허권을 전문 생산업자가 확보하게 된다면 연간 10만달러 이상을 벌수도 있을 것임. → 쥐뿔의 배타적 생산자로 남는 비용은 그 특허를 팔거나 (120-150만달러) 대여하기를 거절해서 포기한 기회의 가치임. 이러한 상황은 연간 10만달러의 이윤을 사실상 손실이 되도록 하는 것임.(쥐뿔을 계속 생산함에 따라서 계속 쥐뿔 생산비용은 연 15만달러{150만달러 * 10%(연방채권수익율)}로 증가하게 됨. 즉, 특허권을 팔아서 정부채권을 사지 않음으로써 포기한 소득임.)

<연 20만달러 순수입 기대되는 특허의 가격결정과정>

특허권 가격		수익율
무위험투자수익율(가정)		연 10%
150만 달러	특허권 매수호가는 쥐뿔 생산업자의 이윤을 생산비용으로 전환시킴	연 13%
120만 달러		연 16.5%

* 특허권은 150만 달러 이상으로도 거래될 수 있음.

- 특허권을 구입한 기업은 연간 순수입이 20만달러로 증가한다면 생산비용 15만불(특허권 150만 달러 * 10%)을 제외하고 5만 달러의 이윤이 발생함. 이는 그 특허권의 실제가치에 대한 사전적인 불확실성의 결과이며, 기업가적 정신에 대한 보상임.

17. 주요자원을 위한 경쟁

- Q: 정부가 높은 밀가격을 보장하여 밀재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이 효과가 있는가?

A : 정책이 알려지자마자 토지이용(농부의 토지구입비용 증가, 토지임대료 증가 등)을 위한 비용 상승으로 밀 생산비용 증가 (이득을 보는 자는 일반에게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밀 재

배에 적합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뿐임)

- Q: 어떤 도시의 택시면허의 수 제한의 효과는?

A : 면허를 얻기 위한 경쟁으로 택시면허의 가격 상승 → 택시 운행비용 상승(택시면허 소유권을 얻거나 보유하는 기회비용 증가 등) 초래(법적제한조치가 취해지기 전 면허소유자만 면허가치 상승하게 됨.

- Q : VHF 텔레비전 채널 방송권리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 가장 높은 가격 제시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정부는 큰 금액을 받을 것이며, 그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사에게는 비용이 될 것임. 2) FCC가 사용금액은 받지 않으면서 경쟁하는 여러 신청자들의 장점과 그들이 미래의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한 약속 등 모호한 기준으로 특정 채널의 사용권을 할당해 음 → 그 결과, 신청자들은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동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문가 등을 고용하여 경쟁함. 이 경우에 이윤을 창조하는 중요한 자원은 FCC의 결정이며, 기업가들 사이의 경쟁은 그 결정을 제어하는 힘을 얻으려는데 목표를 두게 됨. 따라서 채널을 획득하여 얻을 이윤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용으로 전환됨.

18. 경쟁과 재산권

- 이윤과 손실은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며,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존재할 수 없음.

- 이윤을 얻는데 관련된 모든 것이 확실히 알려진 곳에서는 이윤을 얻기 위한 경쟁으로 수입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하여 이윤이 없어질 것임.

→ 어떤 사회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관련된 게임의 규칙에 의하여, 혹은 자원을 배분하며 그 자원들의 사용으로 얻은 편익을 사용하는 능력을 할당하는 재산권에 의해 결정됨